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金 惠 娟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김 명 실

2005年 2月

제주도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金 惠 娟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年 12月



제출자 김 명 실

김명실의 교육학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12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목 차

국문초록	iv
I.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목적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5
1) 서구	7
2) 아시아	11
3) 한국	15
4) 제주도	19
2. 여성의 정치참여와 장애요인	21
1) 사회적 요인	21
2) 정치적 요인	23
3) 가정생활 요인	25
3. 여성정치인의 개인적 배경 및 가정생활	27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32
1.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32
2. 조사내용	33
IV. 연구결과 및 해석	3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4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34
2) 조사대상자의 정치활동 입문배경	34
2. 조사대상자의 가정생활	37
1) 집안일의 수행방식	37
2) 부부 및 자녀와의 생활	42
3.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	47
1)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	47
 V. 결론 및 제언	 52
 참 고 문 헌	 55
 Abstract	 59
 부 록	 62



표 목 차

표 1. OECD 국가의 HDI, GDI, GEM	6
표 2. 영국 정당별 여성 하원의원 비율의 증가추이	10
표 3.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13
표 4. 각국의 여성 국회의원 현황	14
표 5. 역대 여성의원의 비율	16
표 6.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18
표 7. 제주지역 성별 지방의회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	20
표 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국문초록>

제주도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

김 명 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指導教授 金 惠 娟

여성의 정치참여는 20세기 후반 사회변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여성의 정치활동은 여성의 권리입과 동시에 여성의 이해와 관심을 의사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회활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많은 인적 자본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활동은 경제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정치활동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비해 여성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국한시키려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여성 정치인의 가정생활과 여성정치인으로서 어려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여성이 정치인이 되거나 정치인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여성의 정치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여성정치인으로, 제주도에서 의원활동을 직접 했던 경험을 갖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의원과 함께, 현재 정당활동 및 단체장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치활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대표여성들을 포함하였다. 한정된 여성 정치인은 모두 8명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개인적 상황, 가정생활 및 정치활동 등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며,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수차례의 면접을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여성 정치인은 개인적 의지보다는 주변의 권유 내지 상황적인 이유와 같은 소극적 경로를 통해 정치활동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는 남성 정치인과 달리 여성이 정치가로서 정체감을 가질 수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장애 요인으로서 교육환경의 조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 정치인은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부정적인 주변 사람들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친척, 남편 및 나아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시댁 및 친정 등의 친척은 주로 자녀들의 양육이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편은 집안일 뿐 아니라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자이기 쉬웠다. 또한 자녀는 성장한 이후 어머니의 정치활동에 대한 이해자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 정치인이 가족내에서와 주된 친척들에게서 정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 이런 이해가 없다면 정치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여성 정치인은 여성의 정치활동이 여성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제약을 받기 보다는 사회제도적 지원, 지지 기반의 취약 등의 구조적 문제를 들고 있어서 여성이라는 성구분적 문화가 장애요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여성정치인에게 있어서 정치활동으로 인한 빈번한 사회활동과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실은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이라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이중역할로 여성정치인은 심리적 역할 갈등 및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정치가의 공인이라는 특성으로 가중되어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 이미지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여성은 흔히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어, 여성의 정치 참여는 20세기 후반의 중요한 사회변화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성도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예는 인류 역사상 많이 있었다. 서구의 예로는 사바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영국의 여왕들, 프랑스의 잔다르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라시대에 여왕이 나라를 통치했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1960년 스리랑카의 반다라나이케 여사는 세계 최초의 여성수상이 되었으며, 그 후 노르웨이의 브룬트하트 여성수상, 아이슬란드의 최초 민선 여성대통령, 일본의 사회당 당수 도이 여사, 필리핀의 아키노 전 대통령, 인도의 인디라 간디 여수상, 이스라엘의 골다메디어 등 여러 나라에서 여성이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출된 바가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정당활동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의회참여율은 극히 낮아서 1948년 초대부터 1992년 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2%이며 그 중 제주지역은 0%였다. 15대 국회에서 3%(9명)이며, 16대 국회에서 5.9%(16명), 17대 국회에서 지역구 10명, 전국구 29명 등 총 39명의 여성의원 비율이 13%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하였다.

1995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국제연합개발계획)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 정치 및 경제분야에의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척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GDP가 15위 수준인 것과는 달리 조사에 응한 116개국 중 90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¹⁾의 2003년 자료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이 스웨덴 45.3%, 덴마크 38%, 핀란드 36.5%이었으며 아시아권에서도 베트남 27.3%, 중국 21.8%, 파키스탄 21.1%, 필리핀 17.8%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는 세계적인 수준(평균 1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7년 유네스코 교육통계자료²⁾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가 세계 32위, 남녀간 성취수준의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성별 평등지수는 34위인 반면, 전문직, 관리직 및 의회의석에서의 여성비율을 나타내는 성별권한척도는 73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각 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통계 자료들은 우리나라 여성이 전문직, 관리직 뿐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 배제됨으로써 주요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정치의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정치리더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여성의 정치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여성의 정치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성들 자신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면서도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1) Inter-parliamentary Union(IPU), Men and Women in Politics :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a World Comparative Study(Geneva : IPU, January, 1997).

2) www.unesco.org

여성의 역할을 가정적인 것으로 한정할 뿐 아니라 여성과 정치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관념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활동 및 참여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당구조 및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장애요인들(이병화, 1990; 홍미화, 1998; 이진, 2000; 장근숙, 2001; 백영옥, 2001; 진은희, 2001; 김지선, 2002)만을 다루고 있어서 여성정치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즉 남성정치인과 달리 여성으로서 여성정치인이 가정생활과 정치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본적인 실제적인 어려움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목적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정치활동은 경제활동의 참가를 넘어서 여성자신의 이해와 관심을 표현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활동은 그 분야의 특수성 및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태도로 인해 여성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으며, 참여한다고 해도 여성으로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 및 정치활동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함으로써, 여성정치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자료 및 정책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성 정치인의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 1-1. 집안일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1-2. 부부 및 자녀와의 생활은 어떠한가?
2.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제주도는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수가 적다. 따라서 지역내에서 거의 정치인과 동일한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정당활동 종사자 및 정치와 관련한 여성단체장 등을 여성정치인에 포함시켰다.

둘째,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하며, 또한 이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어 타지역의 여성정치인의 실태와 다소 다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정치란 국가와 지방정부 등 크고 작은 사회의 단위별로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집합적 노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³⁾.

현대사회에서 여성지위에 대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여성들의 정치 및 공공분야에 대한 진출비율이라면 최근 여러 나라 여성들의 정치영역에서 지위는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구의 여성들은 1세기 전부터, 한국여성은 반세기 전부터 참정권을 쟁취하였으나 아직도 남성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활동이 낮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985년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 인력이 세계 노동시간의 2/3를 충당하면서도 세계수입의 1/10만의 수혜자이며, 세계자산의 약 1%를 소유하고, 정치요직은 불과 6%만을 점유한다고 하였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정치분야로의 진출이 겨우 11% 내외 밖에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1998년 191개 국가의 여성정치참여 비율은 나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IPU에서 1998년 6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이 아닌 중앙 여성의원 평균비율이 13.1%이지만 우리나라는 3.7%로 129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 2000년 12월 조사 대상 177개국의 여성 의원 평균이 13.9%인데

3) 소광희(2002),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Inter-parliamentary Union(IPU), Men and Women in Politics :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a World Comparative Study(Geneva : IPU, January, 1997), p. 84.

1997년 1월 기준으로 상·하 양원 합해서 평균 11.7%이며 하원 혹은 단원 만은 12.0%이고 상원은 9.8%로 되어 있다.

〈표 1〉 OECD 국가의 HDI, GDI, GEM(2000)(단위 : 위, %)

	인간개발 지수(HDI)	여성개발 지수(GDI)	여성권한 척도(GEM)	국회여성 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한국	31	30	63	4.0	4.7	31.9
호주	4	3	11	25.1	24.0	44.4
오스트리아	16	16	12	25.1	27.3	47.3
벨기에	7	7	10	24.9	30.2	47.1
캐나다	1	1	8	22.7	37.3	52.2
덴마크	15	14	4	37.4	23.1	54.1
프랑스	12	11	-	36.5	25.6	62.7
독일	14	15	6	9.1	-	-
아이슬란드	5	5	2	6.3	22.0	44.9
이탈리아	19	19	31	10.0	53.8	17.8
일본	9	9	41	9.0	9.5	44.0
멕시코	55	50	3	18.0	20.7	40.2
네덜란드	8	8	7	32.9	22.8	45.7
뉴질랜드	20	17	9	29.2	36.6	51.5
노르웨이	2	2	1	36.4	30.6	58.5
스웨덴	6	6	3	42.7	27.4	48.6
스위스	13	13	14	22.4	20.1	39.9
영국	10	10	15	17.1	33.0	44.7
미국	3	4	13	12.5	44.4	53.4
헝가리	43	38	42	33.6	26.6	49.0

자료 : 국회여성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은 여성권한 척도(GEM)에 포함된 요소.

UNDP(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스웨덴 42.7%, 덴마크 37.4%, 핀란드 36.5%, 노르웨이 36.4%로 30%를 넘고 있으며, 캐나다 23.6%, 미국 13.8%, 중국 21.8%, 일본 10.8%를 기록하였다⁵⁾.

지방의회 여성 진출 비율은 스웨덴이 41.3%로 가장 높은 편이며,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30-40% 수준이고 벨기에, 캐나다 등은 10-20% 정도이다⁶⁾.

1) 서구

(1)미국

미국에서 여성 정치참여 현황은 1987년 장관급에 임명된 여성들의 비율은 전체 중 5.6%였고 차관급은 12.2%였다. 1994년에는 장관급 여성들은 22명으로 전체 14%를 차지했고 차관급은 264명으로 26%를 점유했다.

1998년 연방의회에 59명의 여성의원인 진출, 전체 연방의원의 11.5%를 차지하였다. 이중 상원이 9명으로 8%, 하원이 50명으로 11.5%이다. 그리고 주의원은 1,605명이 진출, 전체 주의원의 21.6%이다. 1969년 301명이 진출해서 4.0%를 차지한 것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여성시장의 경우도 1997년 100개의 대도시중 12명으로 12%이고 인구 3만명 이상의 지역도시는 202명으로 20.7%이다.

종합적인 수치로 미국 여성의 정계진출을 단순화시켜 보면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연방의회에는 10% 초반, 대·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주 의회와 기초(시·군)의회에는 20% 초반대인데 이러한 수치는 1970년대에 비해 약4-5배 증대된 수치이다.

이렇게 미국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한 이유로는 첫 번째 여성정치인에 대한 정당의 우호적인 태도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의식변화로 여성표의 영향력이 보다 크다는 인식과 여성후보를 내는 것이 득표에

5) 한국정치문화연구소, <http://www.kiwp.or.kr>.

6) 인간개발보고서, <http://root.re.kr>.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진출시키게 되었다. 여기에 다 일반 여성단체와 정당 내 여성조직의 적극적인 활동의 증가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재단의 적극적 후원이다. 진보적이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들의 선거자금과 선거운동을 지원해 주는 재단이 설립되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게 되었는데 엘리너 루즈벨트 재단, 민주당내 여성의 원위원회, 에밀리 리스트(EMILY's List)와 뒤이어 공화당에서 결성한 위시(Women in the Senate and House : WISH) 등이 핵심적 재단들이었다.

세 번째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성정치인 훈련이다. 여성정치인 양성을 목표로 창설된 전국여성정치연맹(The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이 그 예이다⁷⁾. 훈련을 통해 선거전문가를 양성하고 당내 고위직에 여성을 진출시키고, 또 여성을 대통령선거에 선거 운동 책임자로 들여보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성정치인의 정치적 역량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의 역할이다. 많은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들어가야 남녀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1971년 여성정치연맹 결성 후 여성유권자 연맹, 전국여성조직, 여성선거운동재단, 미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의 영향력이 막강한 여성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여성후보자의 발굴에서부터 후보자교육 및 훈련, 차세대여성지도자 연수, 유권자 의식교육 및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육성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스웨덴

스웨덴은 전국이나 지방차원의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의회 의석의 42%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성 정치 참여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⁸⁾. 스웨덴에서 여성의 참정권은 1919년에 도

7) 백영옥(2001), “2002년을 향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입되었다. 여성이 투표할 수 있었던 의회선거는 1921년 처음이었으며 같은 해 처음으로 여성이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스웨덴 의회에서 여성의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왔고, 1994년 9월 선거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41%까지 오르게 되었다.

스웨덴에서 여성의 의회진출이 높은 이유는 여성당(Women's Party)에 대한 활발한 논의, 평등업무국(Equality Affairs Division)과 더 나아가서 평등업무 담당장관(Minister for Equality Affairs)등을 두고 있다는 점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여성비율 할당제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⁹⁾.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여성들이 정당정부의 상위에 위치하게 될 때 소선거구제도에서 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 내 대부분의 정당들은 정당의 모든 후보자 지명에 있어서 60 : 40의 비율을 지키는데 이는 여성과 남성 후보자들 중 어느 성도 60%를 초과하거나 40%를 미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들로 인해 스웨덴 의회의 여성 의원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해왔다.

(3)영국



영국의 정치체제는 강력한 정당중심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의회기능을 하는 하원의 의원수는 대략 651명이며, 이들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영국의 현재 여성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영국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18.2%인 120명이 당선되어 1980년대에 비해 6배 증가하였다. 2001년 총선에서도 118명이 당선되어 약 18%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원이 대거 등장하자 의원회관측은 당구장을 탁아시설로 개조하고 남성용 이발소를 남녀공용으로 바꾸고 여성전용 휴게실과 화장실로 늘렸다고 한다.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내 여성의원이 많이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8)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98), “여성정치지도자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여성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정당충당 과정을 중심으로” . p.42.

9) 강근숙(2001),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실태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성참여 촉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 한 예로 노동당내 고위직인 전국집행위원회 29석 중 5석(17%)을 여성을 위해 할당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여성운동에 힘입은 것으로 여성조직의 활성화와 함께 여성 의식도 높아나갔다.

두 번째는 여성후보 할당제 채택이다. 여성후보 할당제의 요점은 다음 총선 전까지 노력으로 은퇴하는 남성의원의 지역구 위원장의 50%와 승산 가능성이 큰 지역구의 위원장 50%씩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공약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내걸고 지구당 여론조사를 실시해 노동당 후보의 당선 이 확실시 되는 곳에 여성후보를 우선적으로 공천했고, 여성후보에 대한 적극적 인 선거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세 번째는 여성 정치참여 증진프로그램 운영이다.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는 초년병 여성정치 지망자 후원이나 여성들의 정치참여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 해서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고 있다. 보수당의 경우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 방법으로 여성의원 수를 늘려나가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 대 처 등장 이후 여성의원 300명을 내보낸다는 의미의 300group을 만들어 가동 중에 있다.

<표 2> 영국 정당별 여성 하원의원 비율의 증가추이 (단위 : 명, %)

정당 총선연도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기타정당 전체	여성의원 전체
1983	10(4.8)	13(3.3)	0(0)	0(0)	23(3.5)
1987	21(9.2)	17(4.5)	1(4.5)	2(8.7)	41(6.3)
1992	37(13.7)	20(6.0)	2(10.0)	3(12.5)	60(9.2)
1997	101(24.2)	13(7.8)	3(6.5)	3(10.0)	120(18.2)
2001	94(22.9)	14(8.5)	5(9.6)	5(18.5)	118(18.0)

자료 : Rachel Mclean, National Women's Officer, The Labour Party, 1999.

<http://www.parliament.uk/commons/lib/gender>

(4)프랑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근대적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유럽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유럽국가 가운데 최초로 1848년 남성의 보통 선거권이 인정된 프랑스의 정치분야는 낙후되어 있어 여성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1944년에야 인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럽에서 정치여성의 수가 가장 적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1980년 미테랑의 집권과 더불어 국가페미니스트들은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여성정치참여를 진작하려고 노력하였다. 1988년 여성권리처(State Secretariat for Women's Right)를 설립, 노동법에서의 여성을 위한 할당제규정 확정, 남녀혼합 직업계약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9년 헌법의 개정과 2000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2001년 선거에서는 주민 15,000명 이상의 코뮌에서 44명의 여성 시장이 배출되었고, 시의원의 비율도 22%에서 47.5%로 급증하였다. 이는 프랑스가 하원의 여성위원 비율이 10%에도 못 미쳐 유럽국가 중 최하위권의 여성 저대표국이라는 현실을 타개해 보려고 2000년 6월 조스팽 총리가 주도하여 각급 선거의 입후보자수를 남녀 동수로 하는 선거법을 개정(파리테법, 2000년 6월)한 성과에 힘입어 얻어진 것이다.

2) 아시아

(1)일본

1945년 선거법 개정으로 일본 여성의 참정권이 최초로 인정되었고, 1946년 4월 실시된 제1회 중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당시 여성유권자는 약 2,056만명으로 이중 67%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중의원 여성입후보자 83명중 39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여성의 정치참여는 초기의 여성참여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⁰⁾.

일본여성들은 단체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나, 여성 후보를 위한 선거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며, 선거자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후보는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거나 정당후보로 인식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개발하고 진행해야만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많은 여성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와 정당의 공천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2)대만

대만은 오랫동안 유교사상의 지배를 받아온 사회로 가족의 역할을 중요시 생각하는 가족국가 사회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여성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으로 작용하였으며, 지금도 여성이 사회로 나서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1991년 국민대회 대표선거에서는 의원 총수 225명 중 여성의원이 31명으로 13.8%의 여성 참여율을 기록하였고, 1992년에 있었던 입법의원 선거에서는 총 125명 의원 중 12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9.6%의 여성참여 비율을 보였다.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선거는 3종류로 성의회 의원 선거, 현/시의회 의원 선거, 향/진 시민대회로 구분된다. 성의회의 경우 의원정수가 4명 이상일 경우 최소한 반드시 1명의 여성의원(25%)을 두게 되어 있고, 현/시의회 및 향/진 시민대표의 경우는 매 10명 중 반드시 여성 1명(10%)을 두게 되어 있다. 그 결과 1994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여성은 최고 20.3%의 참여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¹²⁾.

대만여성의 정치참여율을 살펴보면 여성당선 보장제도가 없었던 1950년대에 비하여 보장정원이 마련되어 있는 1970년대 이후 여성 참여율이 훨씬 증가했는

10) 이영애(1995), 「성·권력·정치」. p.274-276.

11) 강근숙(2001), 전개서.

12) 성의회의원 총 79명 중 여성의원은 16명(20.3%), 현/시의회의원 824명 중 여성의원은 128명(15.2%), 향/진 시민대표 6,317명 중 여성은 937명(14.8%)이었다.

데 이것은 여성당선 보장제도가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대만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사회관념으로 남아 있어서 여성이 정치나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선거유권자나 입후보자 및 민의 대표에 있어 여성문제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대만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당선 보장제도 덕분에 우리나라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¹³⁾.

〈표 3〉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구분		연도	의원총수	여성의원	비율
중앙선거	국민대표대회	1991	225	31	13.8%
	입법의원	1992	125	12	9.6%
지방선거	성의회의원	1994	79	16	20.3%
	현/시의회의원	1994	842	128	15.2%
	향/진시민대표	1994	6,317	937	14.8%

자료 : Statistical Abstracts of Elections in The Republic of China, 1946-1982. (Taipei : central Election Committee Ministry of Interior, 1982, 1987) : Record of Election, 1985-1986 : 중화민국선거통계제요, 대만 중앙 선거 위원회, 1995¹⁴⁾

13) 이진(2000),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소광희(2002), 전게서 재인용.

〈 표 4 〉 각국의 여성 국회의원 현황

국 가	전체의석	여성의원수	비 율 (%)
스웨덴	349	149	42.7
덴마크	179	67	37.4
핀란드	200	73	36.5
노르웨이	165	60	36.4
네덜란드	150	54	36.0
아이슬란드	63	22	34.9
독 일	669	207	30.9
뉴질랜드	120	37	30.8
모잠비크	250	75	30.0
남아프리카	399	119	29.8
쿠 바	601	166	27.6
베트남	450	117	26.0
벨기에	150	35	23.3
호 주	148	34	23.0
스위스	200	46	23.0
중 국	2984	650	21.8
북 한	687	138	20.1
영 국	659	118	17.9
미 국	435	61	14.0
프랑스	577	63	10.9
남 한	273	17(15)	6.2(5.5)
일 본	480	35	7.3
브라질	513	29	5.7

자료: IPU, 2001년 7월 1일 통계

www.ipu.org/wmn-e/classif.htm

3) 한국

한국의 경우 역대 선거 때마다 각 정당에서 다양한 여성정책을 제시하며 여성의 표 모집에 주력하였지만, 실제 공천과정에서 있어서는 경험부족, 당선불가 등을 내세우며 여성을 공천에서 누락시키는 소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가 후보로 나서기를 꺼리게 되었고, 여성계 또한 여성후보를 찾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여성계의 활발한 활동과 정부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맞물려 여성문제전담기구로서 정무장관(제2)실의 설치, 한국여성개발원 개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발족과 더불어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가족법 개정, 2001년 여성부의 출범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노동, 가족, 복지 등 제 분야에서 여성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여전히 가장 낙후된 부문으로 남아 있다. 물론 2000년 2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여성공천 30% 할당제가 법제화된 이후, 16-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국회진출이 다소 약진을 보이기는 했으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부분적인 변화일 뿐 제도 자체의 실효성 면에서는 아직 많은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역대 의회에서 여성의원인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해방 이후 헌법과 각종 선거법에는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해 왔으나 사실상 여성의 의회정치참여는 극히 저조하였다. 제헌국회부터 7대 국회까지는 각 국회별로 1명에서 3명까지의 여성의원 밖에 없었으나 1971년 8대 국회부터 여성의원인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면서 다시 감소하였고,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성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당이 1945년 8월 18일에 결성되고 임영신씨가 초대 당수로 선출되는 등 여성의 정당활동이 의욕적으로 진행된 적도 있었다. 박순천 의원은 제헌국회선거부터 6대 국회의원선거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출마하여 4번 당선되었고 7대 국회에서는 전국구의원으로 의정에 참여함으로써 여성 중 최다선의원이 되기도 하였다. 김철안 의원은 1954년 3대 국회

〈표 5〉 역대 여성의원의 비율

국회	총 의원 수	총 여성의원 수	직선에 의한 여성의원 수	전국구 여성의원 수	통일주체 국민회의 진출 여성의원 수	국회내 전체 여성의원 비율	직선 여성의원 비율
1대	200	1	1			0.5	0.5
2대	210	2	2			0.9	0.9
3대	203	1	1			0.5	0.5
4대	233	3	3			1.3	1.3
5대	233	1	1			0.4	0.4
6대	175	2	1	1		1.1	0.6
7대	175	3	1	2		1.7	0.6
8대	204	5	0	5		2.5	.
9대	219	12	2	10		5.5	0.9
10대	231	8	1	7		3.5	0.4
11대	276	9	1	8		3.3	0.4
12대	276	8	2	6		2.9	0.7
13대	299	6	0	6		2.0	.
14대	299	8	1	7		2.7	0.3
15대	299	9	2	7		3.0	0.6
16대	273	16	5	11		5.9	2.2
17대	299	39	10	29		13.0	3.3
합계	4104	133	34	82	17	2.9	0.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총람(1대-17대).

한국여성개발원(2003), 2003 여성 통계연보.

선거에서 전국에서 당선득표율이 최고로 높은 4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¹⁵⁾.

그러나 1948년 초대부터 1992년 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2%이며, 제주지역의 경우 0%였다. 이 비율도 그나마 지역구나 정당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나 전국구 비례대표제 등을 통한 위로부터의 정치적 배려 차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 이었다¹⁶⁾.

또한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대표해줄 후보를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여성후보의 선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지방선거가 여성의 정체세력화를 위한 교두보로 보고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해 여성단체들과 여성관련 연구기관들이 연대하여 제도권 정당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제나 공천할당제 등 제도개선 요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5년 활동목표를 여성의 정치참여에 두고 정당의 여성후보 20% 공천할당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좋은 여성후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다. 지방의회 여성참여후원회를 결성해 여성후보 선거 실전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후보와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나갔다¹⁷⁾. 이러한 활동에 기반하여 1995년 6.27 선거에서 17명의 후보를 배출하였다. 그 결과 17명 후보 중 광역 4명, 기초 10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¹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95년 3월 6-8일 지방의회 여성후보자와 선거참모 등을 대상으로 제 4회 지방선거대비 여성후보자교육을 실시했다. 선거홍보 전략과 유세방법, 연설연습 등을 실제적인 교육내용으로 여성후보자가 지방의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16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의 수가 16명으로 늘어났고,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39명으로 늘었다. 특히, 16대 총선에서 서울에서만 3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

15) 소정희(1990), “한국 여성정치인의 출신 배경과 의회진출 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제7집. p.150-151.

16) 김혜연(1996),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단체 Network Movement에 의한 가능성 탐색-”, 제주리뷰, p.42-54.

17) 여성신문, 1994년 7월 7일자.

18) 엄미경(1997), “지방의회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 정당, 여성단체, 여성후보자와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사회과학연구 8권 1호. p.204.

것은 지역구 여성 불모의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아직 미흡하긴 해도 17대 국회에서 여성이 의회 의식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정계 진출이 활발해졌다. 어느새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여성 대통령의 등장도 있을 수 있는 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치는 사람의 일일 뿐 남성만의 일도, 여성만의 일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벽은 여성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기성정치의 텃이 도처에 널려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보내지는 지지는 금방 사그라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은 유념해야 한다.

〈표 6〉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연도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전체	여성 의원	비율 (%)	전체	여성 의원	비율 (%)	전체	여성 의원	비율 (%)
1995	-	-	-	972	13	1.3	4,514	71	1.6
1998	299	11	3.6	690	41	5.8	3,490	56	1.4
2000	273	17	6.2	-	-	-	-	-	-
2002	273	16	5.9	689	63	9.2	3,485	77	2.2
2004	299	39	13	-	-	-	-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자료, 1995-2004.

<http://www.nec.go.kr/>

정당 사상 최초로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상설 교육기관이 출범했다. 열린우리당의 여성위원회는 11월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 여성 리더십 센터’ 창립 기념식을 갖고 센터 소장에 홍미영 의원을 임명했다. 센터 측은 향후 교육계획으로 차세대 여성 예비 정치인과 각종 선거 출마 희망자, 기간당원 등의 정치 입문을 지원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성인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¹⁹⁾.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정치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56.4%로 절반을 넘었으며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그리고 여성정치인의 참여로 개선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감소(30.9%), 사회복지정책 강화(30.1%), 정치 관심분야의 다양화(23.4%), 일반 국민에 대한 친근감(13.1%) 등을 꼽았다.²⁰⁾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상당히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막상 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조사결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문제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 현실은 여성 자신 뿐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대사회가 점점 정치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정치의 일상화의 흐름에 입각해서 볼 때, 인구의 50%인 여성이 이렇게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음은 그만큼 여성과 관련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정치적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4) 제주도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특정인의 그리고 중앙의 독점물인 것으로만 여겨져 온 정치를 그 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지방과 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 국민일보(2004, 11월 2일자), 與 여성 정치인 육성 센터 첫 개설.

20)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 조현옥)는 여론조사기관 (주)이트렌드에 의뢰, 지난 1월26~27일 양일간 서울 송파, 마포, 은평 3개 구와 광명-과천-하남시 등 3개 시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후보자가 있는 수도권 6개 지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는 <표 6> 에 나타나듯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비례대표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미약하지만 지역의 기반을 두고 정치일선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정치영역에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 하겠다. 여성은 기초의회보다 광역의회의 참여율이 높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보다는 비례대표에 의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비율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거나 여성의 정치참여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다만 1995년 선거보다 1998년 선거에서 지역구의 비율이 높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04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7번으로 출마했던 현애자후보가 제주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표 7> 제주지역 성별 지방의회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시행연도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계	여자	계	여자
광역의회	1991	49	0	17	0
	1995	46(4)	0(1)	17(3)	0(1)
	1998	37(4)	1(2)	14(3)	0(1)
	2002	38(3)	1(4)	16(1)	0(2)
기초의회	1991	94	1	51	0
	1995	123	1	51	0
	1998	87	0	41	0
	2002	85	0	38	0

자료 :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2000), 2000 제주여성통계연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자료, 1995-2002.

<http://www.nec.go.kr/>

2. 여성의 정치참여와 장애요인

여성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 여성-즉, 정치를 할 능력과 욕망을 가지고 공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며 공직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의 표본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외적인 존재로 간주되곤 하였다. 실제로 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의 독점무대였고, 선진민주국가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대부분 금세기에 시작되었으며, 21세기 현재에도 극히 소수의 여성만이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있었고 여성도 훌륭한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많은 역사가 보여 주고 있다. 클레오파트라, 영국의 여왕들, 프랑스의 잔다르크 등 여성지도자의 예는 잘 알려져 있다. 금세기에 들어서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이스라엘의 골다메어, 인도의 인디라 간디 등이 여성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여성에게 있어서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낮은 형편이다²¹⁾.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권은 여성에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가정생활에서는 전통적 부계혈통주의와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뿌리깊이 남아있다. 즉, 남녀역할에 대한 민주평등사상과 전통유교사상의 이율배반적 가치관이 현대 우리나라 사회를 특징짓고 있다²²⁾. 이러한 이중적 사회구조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사회적 요인

21) 강근숙(2001), 전게서.

22) 소정희(1990), 전게서. p.139.

여성이 정치분야에서 거의 부재한 현상을 사회제도와 가치관에 따른 성역할 제도라고 보기도 한다. 성역할(Gender Role)이란 행위나 태도가 남녀별로 적절한 것으로 규정된 문화적 기대치를 말한다. 성역할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규정된 역할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기간 유교문화의 세례를 받아 온 경우 정치는 남성에게 더 어울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논어에서는 여자와 소인배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부부유별, 남녀칠세부동석, 삼종지도, 여필종부 등의 관념이 여성을 억압해 왔다(전영평, 2001).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편향은 상속, 제사, 호주제 등으로 고착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남녀의 역할을 공적 영역과 가정적 영역으로 분리분담 하도록 만드는 성역할 제도에서 파생된 전통적 성별분업으로 인하여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능력 있는 사회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남성의 사회활동을 여성의 가정 내 활동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남성우월주의 사상에 의한 요인도 있다²³⁾. 즉,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역할로 인해 희생, 헌신, 보살핌, 순종의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김준섭²⁴⁾의 연구에서도 일본의 여성유권자들이 그들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던 성별역할분담의 잔존이 여성정치가의 탄생에 있어서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사회의 전반에 내재해 있는 가부장적 남성우월 사상이라고 표명했다.

즉, 정치적으로 성의 평등에 대한 진정한 장애는 여성들이 주부로서 집안일에만 머물러 있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대중매체의 영향도 있다. 남성정치인과 여성정치인을 다루는 대중매체의 태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혼과 별거 등 사생활에 대해서

23) 소정희(1990), 상계서 p.140.

24) 김준섭(2003), “전후 가족 내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변화가 일본정치에 끼친 영향”,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제 18호.

도 여성 정치인의 경우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이 관심대상이거나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양정혜, 2000; Devitt, 1999). 대구시의회 부의장에 출마해 당선되었던 백명희 의원은 당선 후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자질이나 정견보다 주변 환경과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이 주를 이루어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한다²⁵. 샤레와 비셀(Scharrer & Bissell)도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여성 정치인일수록 미디어의 논조가 비판적이라는 것을 관찰했는데 그 이유는 적극적인 여성정치인일수록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있는 미디어로부터 우호적 관심을 끌기 힘들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가사노동의 경감과 고학력 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여성정치인의 수가 늘지 않는 것은 성역할 사회화라는 사회적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정치적 요인



첫째, 정당의 공천 제도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좋은 이미지와 선거자금,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해 보면, 정당의 후보자 지원은 무엇보다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왜냐하면 공천제도를 통해 입후보자를 일차적으로 여과시키고, 자당이 내세우는 후보에 대하여 조직과 자금면에서 상당부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천제도는 비민주적으로 중앙의 일방통행식 하향 공천의 폐해는 상향식 민주화된 공천방식으로 바뀌어져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는 현행 지구당 문제와 함께 불공정 심, 당원의 자질 문제 그리고 돈과 조직 등의 문제로 인해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⁶.

25) 양정혜(2002), “대중매체와 여성 정치인의 재현 -시사 월간지와 여성 월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46-2호, p.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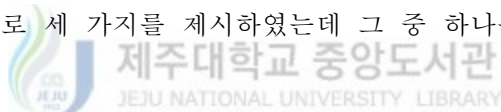
26) 김지선(2002),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8-59.

이러한 문제들로 정당들이 여성후보를 발굴, 육성, 공천, 선거활동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당세확보를 위한 정당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여성후보들이 공천을 받기는 너무나 불리하며 받는다 해도 당선이 불리한 지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더욱이 여성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13,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 전원 낙선이라는 결과는 정당의 지지부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²⁷⁾.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후보자의 당선율이 60.1%에 이른적도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의 라무센(Jorgen Ramussen)은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1918년부터 1984년까지 여성후보들의 선거전을 집중 연구한 결과 정당들이 자신들이 이길 승산이 있는 지역에 여성공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원들의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블레어 노동당 당수가 대다수 승산지역에 여성들을 공천해 당선시킴으로써 입증되었다²⁸⁾.

둘째, 선거제도의 문제이다. 1955년 뒤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여성의 공직진출 장애요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선거제도의 문제로 보았다²⁹⁾.



독일, 북구 등 여러 국가들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선거경험을 살펴볼 때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 여성의 국회진출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선거제도와 여성의 국회진출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셋째, 선거자금의 문제이다. 선거를 위한 자금동원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여성이 당선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기 때문이다. 사적인 통로를 통해 선거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향은 여성들의 정치참여 저해요인이 된다. 여성의원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아니면 남편이나 친척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선거자금조달의 어려움 뿐 아니라 그 한계가 뚜렷하다³¹⁾. 실제로 김원홍의 연구에서는 15대 국

27) 김혜연(1996), 전계서, p.42-54.

28) 백영옥(2001), 전계서,

29) 김현자·주준희 역(1990), “여성, 선거, 의회 진출”, 한국여성개발원. p.35-37.

30) 김원홍(1996), “국회의원 여성후보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회의원 선거 여성후보 중 유급 선거운동원을 선거법에 근거하여 모두 활용하였다고 한 사람은 20명 중 불과 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비용의 부담이 주 이유였다. 선거 기간 중 가장 큰 애로점으로 선거자금을 들고 있었다. 여성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평균 4,800만원으로 전체 평균 선거비용 8,100만원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1/200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10억 낙선, 20억 당선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할 정도로 많은 선거자금은 여성 정치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³²⁾.

남성중심의 정치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정치 제도적 요인이 여성의 정치참여의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가정생활 요인

Julia Butler Hansen 의원은 결혼을 한 경우 개인적 생활을 어떻게 공무와 근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자녀들이 어릴 경우 매일 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당조직의 상층부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개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는 주요한 가사부담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점 중의 하나이다³³⁾.

여성의 경우 연령별 투표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대가 가장 낮고 4-5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40대 이전의 여성이 가장 투표율이 낮은

31) 김지선(2002),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2.

지난 15대 총선 당시 낙선한 여성후보 18명에게 낙선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중 9명이 자금력 부족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제 당선된 다른 후보들도 선거과정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거 자금을 들었는데 이는 여성후보들이 자금 동원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32) 김원홍(1996), 전게서.

33) 홍미화(1998),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이유는 임신, 출산, 양육, 가사일 등 여성을 억압하는 특수한 상황의 문제로 야기되는 현상들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여성의 평등참여를 위해 여성의 성역할인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 할 수 있는 잘 발달된 사회복지체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³⁴⁾.

여성의 역할은 생리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된다. 여성은 가정과 육아에 매몰됨으로써 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여성의 의회진출과 여성의 전통적 역할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녀 양육과의 관계를 고찰한 한 연구³⁵⁾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에 남성들은 대개 20대 후반부터 진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성들의 경우는 4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원이 되려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집을 떠난 후인 40대 이후에야 의회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단위의 선거에서만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비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할 당시의 초선 나이는 지역구는 47세 전국구는 50세이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육아가 여성들의 사회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의원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막내자녀의 나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원(14명)의 자녀 중 막내가 대학이상인 의원이 7명, 고등학교 재학이 1명, 중학교 재학 2명, 초등학교 재학 1명, 그리고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의원이 3명으로 여성들은 젊어서부터 의원직에 충원되기 보다는 대체로 자녀들이 성장한 중년 이후에 의원생활에 입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즉 가사와 육아 등 성적인 분업체계에서 비롯되는 특성과 부담 때문에 남성들에 비하여 정계에 늦게 진출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거나 정치조직에 참여하더라도 재임기간이

34) 이춘호(1985),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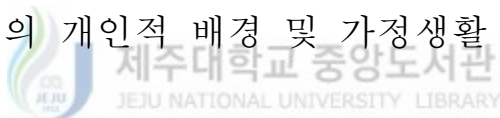
35) 이정자(1992), “한국여성의 의회 진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짧아 높은 정치적 지위나 정당간부에 추천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³⁶⁾.

산업의 발달로 가사보조기구가 개발되고 의식주생활의 간편화가 이루어졌으나 가사노동기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사의 질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자녀들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나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욕구 충족 등에 대한 기회가 증가되었으나 남성의 가사참여가 가사보조의 수준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³⁷⁾.

이와 같이 여성의 생리적인 기능과 가정과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여성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정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노인부양과 같은 제반 사회보장 기능은 국가나 사회단체, 지역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3. 여성정치인의 개인적 배경 및 가정생활



영국의 경우 여성의 의회진출은 귀족출신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도 전후 선출된 여성의원원의 적지 않은 숫자가 상류 또는 귀족출신이었다. 그러나 소정희(1990)의 연구에서 여성 지역구 의원의 대부분이 지방의 중산층 가정출신이었다. 여성의원원의 중산층 출신인 것은 사회계층에 따른 성역할 관념과 태도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상류층일수록 기혼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립을 부정적 시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전문직 여성은 주로 중산층 출신이다. 따라서 여성정치인의 출신배경은 각 사회문화,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원홍(1996)의 연구에서는 제헌국회에서 15대 국회의원 여성 중 지역구는 70%가 대졸이상하였고, 전국구 의원은 87.8%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염미경(1997) 연구의 지방의회 후보자 21명의 학력 분포를 보면 대학원졸 1명, 대졸 5

36) 홍미화(1998), 전게서. p.56.

37) 함인희(1993),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p.134-135.

명, 전문대졸 2명, 대퇴 2명, 고졸 8명, 중졸 3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염미경(1997)의 연구에서 광주·전남지역 여성후보자는 모두가 기혼자였다, 이 중 3명의 후보가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다. 남편 직업을 살펴보면 교수 2명, 고급공무원 1명, 개인사업 4명, 회사원 3명 등 분포가 다양했다.

한 개인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가정배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선진국에서 행한 여성 정치인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주의회 여성의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³⁸⁾. 노르웨이의 여성정치인들도 역시 부모나 남편 등 가족구성원 중에 공직 또는 당무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³⁹⁾.

또한 정치제도나 경제개발상태와 상관없이 여성이 정치계에 진출하는 전통적 수단으로 과부계승(Widow's succession)이 있다. 과부계승은 정치가 남편의 사망 후 그 미망인이 남편의 유업을 계승하는 사례로 영국,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나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의 부족사회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17-1964년 사이의 미국 상원 여성의원 10명 중 3명이 남편의 사망 후 유업을 계승한 사례이며, 실제로 1949년까지는 미국연방의회의 여성 의석 중 대부분이 과부계승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전후 실시된 선거에서 여성들이 남편 또는 남자형제를 대신하여 선거에 입후보로 나서기도 했었다⁴⁰⁾.

Bullock과 Hayes의 연구(1972)에 의하면 미국 하원 여성의원 41%가 남편 사망으로 인한 출석을 채우기 위해 의회에 진출했다⁴¹⁾. 또는 남편이 정치에 개입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 정치적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Edith Green과 Julia Butler Hansen 의원의 경우는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가족의 영향을 받은 경우이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정치에 관여했었다. Green 의원은 “아버지는 직접 출마는 하지

38) Kirkpatric, Jeane J.(1974), “Political Woman”, New York : Basic Books.

39) Means, Ingunn N.(1972), “Women in Local Politics : The Norwegian Experience”,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 p.365-388.

40) 소정희(1990), 전게서. p.141에서 재인용.

41) Charles. Bullock & Patricia Hayes(1972), “Recruitment of women for congress : A Research Note”, Western Politics Quarterly, 25. p.416.

않았지만 다른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관여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다. 정치적 동기가 가정의 영향이 컸음을 밝힌 것이다. 외국의 경우 여성정치인은 가족, 형제, 남편의 영향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제공받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구자세대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19년 3.1운동이었다. 여성의 학교교육, 애국심, 신앙심 등이 상호작용적으로 정치현장에 뛰어들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 2세대 지역구 여성의원들은 그들이 해방 직후 정치혼란기와 동족상잔의 6.25사변의 쓰라린 경험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정치의식화가 된 것이 정치입문의 주요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정당에 입당하여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쳐 의회에 진출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국구 여성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당의 여성국장직을 역임한 소수의 여성들을 제외하면 정치입문의 자생적 동기 없이 의회에 진출한 사례가 대다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김정례 의원은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 아래서 정치수업을 연수하고 자유당에 입당하여 정치 사회화 과정을 거쳤다.

김원홍(1996)의 연구에서도 15대 총선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총 20명 중 과거나 현재 가족이나 친지 중 정치인이 있었다는 후보자가 10명이나 되어 가족내 정치인이 있는 것이 보다 정치에 나서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학 시절과 사회운동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현경자 의원의 경우 6공 시절 자유민주연합 박철언 의원의 부인으로 박의원이 슬릿머신 사건으로 감옥에 구속되자 남편에 대한 명예회복차 대구시 수성갑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활동한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정치인 1,2세대인 경우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정치입문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과거에 비해 근래에는 가족의 영향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입문 연령에 대해 여성의원은 대체로 한번에 당선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일찍 지역구에 도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입진출 의원의 경우 5번 낙선하고 53세의 나이로 당선된 사례를 보면 여성들은 보다 젊은 나이에 도전하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했다.

42) 소정희(1990), 전게서. p.149.

어느 나라에서나 기혼 여성 정치인의 경우 그 남편의 지원이 중요한 요인이다. 미네소타주 출신의 Coya Knutson(민주당)의원은 2대(84, 85대)에 걸쳐서 의원에 당선됐으나 세 번째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녀의 술주정뱅이 남편 Andrew가 “어서 가정으로 돌아오구려, 우리 가정생활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을 만큼 망쳐졌다”고 하는 광고를 신문에 냈고 그로 인해 그녀는 낙선을 했다.

소정희(1990)의 연구에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들은 결혼당시 남편의 이해와 협조를 받았다고 한다. 성공적 사회생활에 남편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기본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3대와 4대 국회선거에 입선한 김철안 의원은 자신의 정치입문 성공이 “남편을 잘 만난 덕”이라고 했고 야당 당수직을 역임한 박순천 의원 역시 남편의 이해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고 했다.

여성의 선거 입후보 결정에서 가족이나 남편의 협조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대로 후보자의 대부분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협조를 받고 있었다. 남편이 있는 16명의 후보자들 중 남편이 후보의 지방의회 입후보에 적극적 지원 및 협조를 했다고 답한 경우가 12명, 배려 또는 간접적으로 협조한 경우가 2명이었다. 2명의 후보는 처음에는 남편이나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후보자 등록 후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염미경, 1997).

남편과 사별한 후보자 중 전남 농촌지역에 입후보한 2명의 후보자는 “남편이 생존해 있었다면 나는 사회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성이 사회활동 특히 정치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염미경, 1997).

2001년 여성부 장관 한명숙씨가 한 월간지 인터뷰에 일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과의 불화를 겪고 시집에서는 아예 내놓은 존재라고 하였다. “가사분담 문제로 많이 싸운 게 사실이에요.. 가족에게 소홀하게 되는 것에 대해 저 역시 늘 죄의식을 갖고 있었지요..” (2001. 3. 우먼센스).

일본의 공명당 아이치현 본부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옹립하는 여성후보자의 조건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며, 남편의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육아과정이 끝나 있으며, 남편에게 생활력이 있다.”로 하고 있다. 양마구치 미즈코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필요로 하다고 일컬어지는 집안, 선거자금, 사회적 지위 외에 여성

에게는 가족의 이해라는 것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⁴³⁾.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조건 외에 여성의 경우는 가족 특히, 남편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이해가 따르지 않는 경우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 소홀로 가족문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43) 김준섭(2003), 전계서, p.164.

Ⅲ.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제주도의 여성정치인이다. 제주도 내에 현재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정당 활동 종사자 및 정치와 관련한 여성단체장을 여성정치인의 대상에 한정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거의 정치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연구의 주된 분석 초점은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과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독신인 여성정치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정치활동에 대한 뜻이 없이 단체생활이나 정당에 종사하는 여성정치인은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8명의 여성정치인을 조사대상자로 최종 선택하였다.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을 이용한 사례 연구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여성 정치인은 연구자와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알고 지낸 분이 많았다. 이들과 평소에도 항상 접촉을 하고 있어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비공식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관찰과 함께 수시로 의견을 나누었다. 본격적인 사례 연구를 위해 사전 약속을 하여 반구조적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식적인 면담 기간은 2004년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고, 조사대상자가 하는 말을 직접 받아 적거나, 녹음을 병행하였다. 정치인들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공식면담 이외 여러 차례의 전화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2. 조사내용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을 실시한 내용은 크게 개인의 일반적 사항, 가정생활 및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일반적 사항은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배우자, 자녀, 결혼년도, 소득 등 출신배경과 가정생활의 일반적인 것을 질문하였고 정치적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입문과 관련하여 입문시기, 입문 동기 등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다. 가정생활은 집안일, 자녀돌보기, 경조사 및 그 외 일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생각 등을 질문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여성정치인들의 연령은 다양하여 3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는데, 이에 따라 배우자의 연령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배우자의 직업은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직, 공무원, 농업(농민운동가)이 각 1명씩이었으며, 퇴직을 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학을 중퇴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졸이상이고 석사인 경우도 있어 엄미경(1997)의 연구에서와 같이 제주도에서는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었다. 자녀 수는 2-3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4명인 경우도 있었다. 막내 연령은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모두 출가한 경우도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정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정당 활동 기간은 최소 2년 6개월에서 30년까지 분포되어 있어서 차이가 많았다. 현재 정당 활동을 하는 데까지 직업경력을 살펴보면 여성정치인들은 직업이나 어떤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는 전혀 없었다. 단지 <사례 1>, <사례 3> 그리고 <사례 8>의 경우는 일정 기간 주부로서 생활을 했던 기간이 있었다. <사례 3>과 <사례 7>은 전직이 교사였으며, <사례 6>은 건강상의 이유로 문예활동을 중단하고 농민활동을 계속하다가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성정치인들은 스스로 정치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표 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연령	학력	정당활동 기간(년)	결혼 년도	배우자 연령	배우자 직업	자녀수	막내 연령	월평균 소득 (만원)	월평균 생활비 (만원)
1	50	대졸	16	1981	53	교육직	3명	24세	700	350
2	35	대졸	10	1994	38	자영업	1명	4세	300	200
3	54	석사	9	1976	57	공무원	4명	9세	500	300
4	33	대학원수료	11	1996	40	사업	2명	7세	400	200
5	65	대졸	13	1967	67	퇴임	3명	32세	600	200
6	43	대중퇴	4	1991	43	농민	3명	5세	250	150
7	55	석사	2.6	1975	56	상업	2명	27세	200	100
8	63	대중퇴	30	1962	68	자영업	3명	34세	1,000	100

대학교 때 ‘학생회장’ 출마를 계기로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사례 4>와 ‘단체장’ 생활을 하다가 여성들의 어려움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치활동을 시작한 <사례 8>의 두 경우에서만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데 개인의 의지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사례 8>의 경우 자신이 정치활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부터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가정생활을 위해 일정 기간 단체장 생활을 그만두었던 기간이 있어 가정생활의 영향을 받았다.

“단체장 생활 한지는 오래되었지 내가 회장을 30대에 했으니깐.. 그러다가 그만두고 가정에 들어갔다가 내가 50대가 넘어가지고 다시 사회에 나온 거지. 30대에 했었지만 중간에 올 스톱해 놓고 집으로 들어갔었으니깐....” (사례 8)

따라서 <사례 4>의 한 경우만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정치활동을 자신에게 맞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정치활동을 지향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학교 3학년 1994년도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을 통해서 하면서 매 리트를 느끼고 그 당시 신한국당에서 공채하는 것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내 적성에 맞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1996년 24살에 공채를 통해서 들어간거죠” (사례 4)

위의 두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 정치인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거절하기 어려우니 좀 해보다가 그만두겠다는 생각 하에 정치활동을 시작한 소극적 경우가 많았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시작했지. 아는 사람 부탁인데 거절 못하고.. 경행 시작해신디 지금까지 일하게 된 계기가 된거지” (사례 1)

“아는 분이 정당 지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성 조직을 관장하고 리드해줄만한 사람이 없다. 처음으로 그런 권유를 받은 거죠. 전혀 생각을 못 했었죠. 관심도 없었고, 한 한달 동안 계속 권유를 받았고 나중에는 거절하기도 참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죠” (사례 3)

여성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반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세 경우(사례 1, 사례 7, 사례 8), ‘조금 냉담’ (사례 5), ‘놀라워했다’ (사례 3)는 약한 부정이 두 경우였다. <사례 2>는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이 모두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사례 4>만이 유일하게 주변 사람들이 찬성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소정희(1990)의 연구에서처럼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성정치인도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남편이 중요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다고 해도 남편이 권유 내지 도와주는 경우, 힘을 얻었다. 이는 여성정치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적 역할이 아닌 다

른 역할을 하는 여성, 예를 들어 취업여성에게 배우자의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들(최경희, 1997; 안선영, 1987)과 맥을 같이 한다.

“처음에 남편이 뭐 그런걸 하나? 아직 애들도 어리고 한데...남편도 나중에는 당선 하고 싶으면 해라 이 정도까지 되었다. 남편은 긍정적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도와주고” ..(사례 3)

“처음에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어.. 나중에는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 (사례 8)

“남편은 함께 활동하며 농민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힘을 모으던 동지였기에 제가 결심하는데 가장 독려하고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도와준 편입니다” .(사례 6)

여성정치인의 남편은 이해와 협조적 태도로 부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일 외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부인의 정치활동에 적극적이며 유익한 외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의 인맥이 부인의 정치활동에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소정희, 1990; 엄미경, 1997).

2. 조사대상자의 가정 생활

1) 집안일의 수행방식

여성이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경우 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집안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성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시댁, 친정 등이나 도움을 주는 분을 고용하는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족들이 내가 하는 일에는 뭐 다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일에 대해서 협조적이세요. 친정어머니는 서울에 계신데.. 딸이 바쁘니깐 김치를 해서 서울에서 보내주시고.” (사례 3)

더욱이 정치활동으로 인해 외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긴 경우 집안일은 여성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집은 제주이고 서울에서 국회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서 생활을 합니다. 식구들은 모두 제주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통화를 통해 아이들, 식구들과 교감하는 것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정도 집에 내려가 하루 정도를 아이들과 보내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당선이 된 후 아이들 문제에서부터 집안일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 6)

그러나 제주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여성정치인의 경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남편과 자녀 등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사례 1, 사례 3, 사례 5), 가끔 도우미 아줌마를 쓴다는(사례 2) 경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집안일은 거의 대부분이 혼자서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사회활동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여성 정치인의 사회활동 시간이 많아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없는 데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식사를 집에서 별로 안하고, 나다니면서 먹으니깐” (사례 7)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경우 집안일은 집에 돌아와 한다든지 혹은 주말에 몰아서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도 전적으로 자녀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였다 해도 자녀는 여전히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중요한 집안일 영역이다. 취업여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모두 취업시간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역할갈등을 다루고 있다(정선화, 1994).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거중인 부모님이 안 계시는 취업여성의 경우 평일에는 친인척에게 맡겨 놓고 주말에만 자녀를 방문하는 주말엄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숙자, 1990).

우리나라 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의 문제는 가족, 친지에게 위임하여 해결하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유료 개별보육(파출부, 가정부 등)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⁴⁴⁾.

여성 정치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남편, 시댁, 친정 등의 친척관계가 주요한 자녀양육의 해결 체계로 등장한다. 이는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성정치인의 경우 공인이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문제를 타인에게 맡길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생활의 노출 등을 의식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다시 말해 취업여성은 가족, 친지 이외에 비용, 편리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유료 개별보육 및 기타 민간 시설 이용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성 정치인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는 것이다.

44) 김윤주(1997), “맞벌이부부의 자녀 대리양육 형태 및 요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개발원(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애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맡겨가지고 데려오기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서로 주변에 피해가 가고 욕먹을까봐.. 딱 저는 욕먹기 싫어가지고 일년에 한번씩 이사를 다니고..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신경써야 하니깐..” (사례 4)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분담하게 한다든지 혹은 아이들끼리 서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9살 꼬마는 주로 저녁에 집에 간 다음이나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아이 돌봐주는 사람 없어요. 혼자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 안두고. 우리 큰 아들이 어릴 때 일하는 사람을 데려서 해봤더니 그것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약간 비능률적인 면도 많고. 오히려 내가 쯤 힘들어도 가족이 협력체제로 청소를 다 나눠서 해요. 누구는 걸레질... 분담을 해서. 식사 같은 것도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엄마가 바쁘니깐. 반찬은 어디 있다는 등 사실은 형편없는 엄마죠” (사례3)

위의 사례는 여성정치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의해 초래된 극단적인 집안일의 수행방식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 ‘모든 집안일은 시어머니이 하신다’고 답변했던 장상전 총리와 비슷하게 집안일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해주신다는 여성 정치인들은 무수히 많다(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 추미애 전민주당의원 등)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드문 집안일의 수행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즉 제주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예로부터 여성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며, 유교적 관념을 기초로 한 가족공동체 및 자녀와의 동일시 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⁴⁵⁾.

이로 인해 제주도 여성은 집안일에 대한 수행표준이나 가치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경향이 있고, 돌보는 사람 없이 자녀들이 아이들끼리 혹은 친구들과 함

45) 김혜연(1996), 전계서, 42-54.

게 놀거나 집안일을 분담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이 한 가계를 이루는 타 지역과 달리 개인이 각각 개별 가계를 이루는 제주도 가족의 독립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혜연, 1995⁴⁶), 1996). 따라서 제주도 여성정치인이 자녀양육의 문제를 자녀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배경적 요인과 함께 제주도 가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주도는 경조사 및 제사 등의 의례적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⁴⁷, 이는 가정에서의 주요 행사이다. 남성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소위 ‘얼굴만 내비치거나’ ‘돈봉투로 체면을 차리는’ 일로 참여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이러한 의례적 행사에서의 참여는 참석으로 그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가사일을 분담해야 하므로 여성 정치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금은 괜찮지만 초창기, 그러니깐 내가 일을 처음 시작한 때에는 이제.. 더군다나 지금은 대소사들이 식당문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식당문화도 아니었고 하니깐 그런 것에서 조금 책임을 느끼고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이제는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또 미안한 마음, 어른들께는 죄송스런 마음들이었지.” (사례 8)

오늘날 제주도에서 ‘대소사’는 여성들끼리의 관계망을 이용한 ‘품앗이’를 통해 많은 부분 해결되며, 사실 식당이나 상점에서의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가사일은 가정외부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는 ‘가사노동의 시장화’ 내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여성들간의 서비스 교환인 ‘품앗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지원 체계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성 정치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집안 어른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은 심리적 갈등은 여성 정치인이 극복해야 할 여성으로서의 이중 부담인 셈이다.

46) 김혜연(1995),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41-168.

47)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 : 제주문화.

48) 문숙재(1990). 가정생산, 서울 : 신광출판사.

2) 부부 및 자녀와의 생활

앞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인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남편이라 할지라도 현재 부인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남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남편이 지지자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정치활동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정치생활에 대한 지지자였던 남편은 가정생활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협조자로 표현되었다.

집안일을 분담해주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 ‘빨래하고 널고 개고. 청소. 설거지. 거의 다하는 편. 집에 빨리 오면 거의 다하는 편’ (사례 4)이거나 ‘청소나 설거지’ 등의 집안일(사례 1)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남편이 적극적으로 성역할의 경계를 넘어 집안일의 분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별로 도와주지 않거나’ (사례 1) ‘가끔 쓰레기 버려주고, 아이들 챙겨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더라도(사례 2)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여성정치인은 없었다.

이는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집안 일 분담이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측면⁴⁹⁾인 경우와 다소 다른 측면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정치라는 ‘특별한 활동’을 해주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성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일에 있어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기대하지 않는 제주도 여성의 특징⁵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편과의 생활에서 여성정치인이 가장 신경을 쓴다고 하는 부분은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흔히 표현하기 쉬운 태도일 수 있는 ‘식사 내지 건강’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49) 문숙재(1990). 전게서.

김혜연(1995), 전게서.

50) 김혜연(1995), 상게서.

“집안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식사” (사례 8)

“남편에게 옷 잘 챙겨주고. 될 수 있으면 아침을 따뜻하게 챙겨주려고 노력하죠” (사례 3)

“나이가 들면서 건강” (사례 5)

<사례 3>의 진술에서도 조금 나타나지만 여성정치인은 자신이 공인이고 정치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밖에서 남편이 보여지는 모습, 부인과의 비교에서 올 수 있는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와이프가 잘 챙겨주는가라는 특히 보여지는 것에 아직은 신경이 갑니다” (사례 2)

“워낙에 바깥 생활만 하다보니깐 나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주변 분들도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나로 인해 기죽지 않을까 상대적인 열등감. 이게 제일 극복하기 힘든 과제...” (사례 4)

이것은 서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부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가정내외에서 훨씬 조심스런 생활을 하게 된다⁵¹⁾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는 여성정치인이 있는 반면, 방임형의 유형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즉 여성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로 인해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기 쉬운데, 남편 역시 바쁜 생활을 할 경우 각자 서로에게 신경을 거의 못쓰고 사는 형태를 말한다.

51) 한국여성개발원(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우리 가족은 완전 독립가족이라. 따로따로가 일이 더 많고” (사례 8)

이는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의 표준이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보다 낮기 쉽고, 취업 여성의 남편 역시 부인의 가사노동 수행과 수준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으며,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⁵²⁾과 유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남편과의 생활은 남편이 성인이라는 점에서 부인과 관계없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가정생활을 분담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여성이 가정내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회활동을 할 경우 부딪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무래도 자녀와의 문제이다.

자녀는 무엇보다 성인이 아니므로 어른의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차적인 책임자로 간주되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경우 자녀양육, 교육 및 대화 등의 여러 자녀와의 생활문제는 이중역할에서 비롯되는 역할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자녀의 보호와 관련된 대리양육자 혹은 위탁시설의 선택과 관련된 고민이 많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은 이중역할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없다는 문제를 비롯해 부모-자녀관계의 소원, 성격형성 등 많은 문제에 대해 걱정과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⁵³⁾.

“우리 꼬맹이한테도 미안한데..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집에 없는 거. 고 녀석으로써도 제일 쫘.. 학교 갔다 와서 올 때 맞아줄 수 없고... 집에 있으면서 간식도 챙겨주지 못하는. 자상하게 못해주는게 미안하죠” (사례 3)

“일단 엄마가 없다보니깐 애네들이 엄마가 없는 시간 동안 그게 한 4-5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 시간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잘못되게 어울려서 잘못된 일

52) 박언주(1996),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 김윤주(1997), 전거서.

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공부나 학습이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근데 제일 걱정되는게 그런데 어울려 다녀서 나쁜 짓 하지 않을까?” (사례 4)

여성 정치인은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며, 이때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주된 상담자가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주로 대화로써 모든 것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례 1)

“주로 대화를 하는 것 등으로 자녀와 관련된 일을 해결하고. 큰 일은 남편과 의논하고 결정하고” (사례 3)

여성 정치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한편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존재이지만, 성장한 자녀들은 집안일의 주된 분담자이기도 하며 어머니의 정치활동에 대한 이해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정치인에게 남편에 이은 두 번째의 지지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큰 애들은 굉장히 좀 프라이드로 생각을 해요.. 엄마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당당하게 일 하는게 참 좋다고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죠.. 우리 꼬맹이는 불만이에요. 엄마가 없으니깐.. 엄마 언제 다른 애들 엄마처럼 집에 있어주고. 또 제일 미안한게 학교 무슨 행사에 잘 못가주고 하니깐. 엄마 오라고 할 때 잘 못가고 이러니깐.. 다른 애들 엄마처럼 학교에도 자주 오고 하길 바라는 것 같다.” (사례 3)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국회의사당을 데리고 간다거나, 내가 근무했던 중앙당 사무실에 데리고 간다거나.. 행사나 이런거 할 때 남편이 자꾸 데리고 와서 엄마가 하는 일을 보여주면서.. 아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죠..7살

부터는 한나라당 다닌다..국회에서 일을 한다.. 나 역시 애들한테 엄마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아무나 다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 주다 보니깐 애들은 엄마가 일 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고. 가끔 선거 때 한나라당이 잘 안되면 한나라당 망했다며 이런 예기 들으면 우리 딸 속상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냥 애들은 이제 인식을 해요.” (사례 4)

“아이들은 엄마가 능력이 있다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 너무.. 그 뭐라 그럴까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많은 너무 빠지는 것은 쯤 원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엄마가 사회활동을 하고 또 정당생활을 하면서 엄마와 같이 어떤 곳에 가서 봤다든지 그런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례 5)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정치인은 남편과 자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인이 남편과 자녀와의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은 여전히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이중역할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이었다.

“남편식사를 잘 챙겨주지 못한 점과 다른 엄마들처럼 밤늦게라도 잘 놀아주지 못한 점이 가장 힘이 들고” (사례 2)

“아무래도 가족,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못해주는게 제일 미안하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사례 3)

이는 여성 정치인이 정치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의한 이중역할에서 비롯된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취업 여성이 취업활동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데에서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그러나 여성 정치인은 취업 여성이 경험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측면, 즉 체면이나 이미지라는 부가적인 부담을 경험하고 있어 더욱 심리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3.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

1)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은 조사대상자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으로서 가정생활과 정치활동을 양립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정치생활이 가사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어려운 점⁵⁴⁾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정당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뭐라고 할까.. 본격적으로 잘 한다고 해야 하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었지만은 아직도 여성으로서는 하기에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지. 그게 뭐냐 하면은 역시 그 여성이라는 것은 주부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뒤에서 밀어주는 일이 없이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거야..” (사례 7)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로 자녀들이 성장한 중년 이후에 여성이 의원생활에 입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홍미화(1998)의 지적처럼 나이가 먹어야 의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나는 여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50대가 넘어야 하는 거지. 내 주장은 나는 그래. 3-40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가정을 포기하던지 해야지 가정을 포기할

54) 이정자(1992), 전게서.

할거나 직업을 포기할거나 뭐냐? 50대 나이 여자만큼은 50대가 넘어서 어느 정도 어머니 손길이 없고 자기 스스로 장가를 간다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런 후에 해야지 그 전에 여자는 한국의 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초인적인 사람이 아닌 한. 남편이 아주 잘 거들어주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육아를 책임지기 때문에, 출산하고 임신하고, 여자가 하지 암만 남자가 자상하고 다 해준다고 해도 그건 못해주거든. 그럼 그건 누가해야 하나. 여자가 다 해야 돼요. 그걸 하느님이 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간에게 줄 때에 그걸 반분을 해줬으면 하지만 그건 다 여자 몫으로 행 놔둔데 여자 욕심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이게 끝나야 다른 일을 할꺼 아니? 그래서 50대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례 8)

이와 같이 여성 정치인은 여성으로서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흔히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삼다(三多)의 섬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도 왕성하며,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타 지역의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서로 잘 알며, 여자끼리의 사회관계망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사회문화적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제주도의 여성 정치인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이 여성의 정치활동을 용인하지 않는 불리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굉장히 높고 의식이 많고. 정치하면 남성이 하는 전유물로...” (사례 3)

“제주도라는 것 때문에 여성이 강하기도 하고 여성의 색깔이 강하고 좁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례 4)

“여성정치가라면 제주도에서는 약간 우러러 보면서도 조금 또 밑으로 볼려고도 하고 쫘 또 내리칠려고도 하고...제주도에서는 여성정치인이 되기가 좀 힘들어” (사례 7)

위와 같은 지적은 제주도와 제주도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제주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과 달리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제주도 역시 다른 타 지역과 동일하게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나아가 여성 자신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와 직결된다.

기본적으로 여성정치인은 여성의 능력 부족에 의해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그 여자보다도 가족이라든가 남편의 힘을 많이 보자나 이제는 그 여자 자체로서의 능력을 보고 또 여자도 능력 있는 여자는 남자 못지 않게 많은 조직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여성이 반이 넘는 세대이고 여자들이 남자 말을 따르는 세대가 아니다. 여자들도 얼마나 조직적이고 잘 하냐?” (사례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정치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취약점 내지 사회지원의 부족에서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일 큰 문제는 네트워킹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대부분의 정당 체제가 남성중심으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의 학연 지연 뭐 혈연으로 중심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깐 전부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체제에서 여성이 자기의 뜻을 세우고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례 3)

“여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서면요구하고 찾아가고 준비할 때는 몇 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질 때. 그럴 때 쯤 황당함을 느끼죠. 우리 여성이 일하는 방법과 남성들이 하는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인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회의도 느끼고 가슴이 아파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례 3)

“여성들에게 여성후보가 나왔을 때 국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 아니면 여성들이 쾅쾅 뭉쳐서 네트워킹.. 여성이 연계해서 여성을 키워줄 수 있는.. 특히, 제주도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굉장히 높고 의식이 많고.. 정치하면 남성이 하는 전유물로..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구 의원 없는 곳이 제주도 밖에 없어요. 특히, 기초의회 시의회 군의회 여성위원이 없는 곳이 제주도밖에 없어요... 여성의 세력이 굉장히 약한 곳이 제주도예요.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개척해 나가야 ...우리나라의 희망은 여성” (사례 4)



“젊었을 때는 타의에 의해가지고 정당생활을 좀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정당생활을 다시 한번 하다보니깐 뒤에서 보는 눈이 아이고 이제는 아니다라고 설 나인데 왜 정당생활을 하느냐고 핀잔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정당생활도 생각이 있으면 좀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사례5)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면담한 여성 정치인들은 정치활동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인적 변화를 지적하였다.

“인내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싫어도 싫은 내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공손하고 친절해야 하는 것들” ...(사례 2)

“그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생각도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정치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외적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 이게 객관적인가 공정한가 항상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의 폭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겪게 되니깐. 생각하는 것도 좀 너그러워진 부분도 있고... 많은 것을 포용하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사례 3)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것, 포용력을 가지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함.. 굉장히 성격적인 면에서 내 성격 죽이고.. 보는게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사례 4)

말하자면 여성정치인들은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문화에 맞서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모색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인내심, 이해심 등의 포용적인 태도와 같이 여성의 중요한 자질이나 덕목을 갖추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는 여성에게 다소 배타적이고 그래서 선구자적인 활동인 정치활동을 선택 하기는 하였지만, 여성정치인들이 여성이라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즉 스스로 여성다움(femininity)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머무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치참여는 20세기 후반 사회변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여성의 정치활동은 여성의 권리임과 동시에 여성의 이해와 관심을 의사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회활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많은 인적 자본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활동은 경제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정치활동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비해 여성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국한시키려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 정치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활동에서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여성 정치인의 가정생활과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성의 정치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제주도에서 의원활동을 직접 하였거나 정당활동 및 단체장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여성 정치인으로 한정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8명이었으며, 첫째, 개인적 상황, 둘째, 집안일의 수행방식과 부부 및 자녀와의 생활에 대한 가정생활, 그리고 셋째,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의 세 가지 하위 영역에 관해 심층면담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조사에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녹음 후 전체 내용을 기술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여성 정치인은 개인적 의지보다는 주변의 권유 내지 상황적인 이유와 같은 소극적 경로를 통해 정치활동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는 남성 정치인과 달리 여성이 정치가로서 정체감을 가질 수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 내지 교육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성 정치인은 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시댁 및 친정 등의 친척으로부터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이러한 도움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취업 여성이 가족, 친척을 제외하고 타인이나 민간 시설의 도움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성 정치인은 공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이미지관리가 필요하고,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가족, 친척 등에게 의존하거나 혼자 집안일을 수행하는 등 부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 정치인을 특별한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형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남편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해도 현재 여성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이해하는 지지자였으며, 집안일을 분담하는 협력자였다. 자녀는 여성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중역할의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성장한 자녀는 어머니의 정치활동에 대한 이해자가 됨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가정생활과 정치활동의 이중역할에서 오는 부담과 역할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 정치인이 취업 여성보다 더 긴 사회생활과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요구되므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여성으로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여성 정치인은 여성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문제는 여성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지원 부족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관용적인 것과는 달리 제주도의 가부장적 사회문화로 인해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여 지역적 특성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 정치인은 적극적으로 맞서는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인내심 등의 여성적 특징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줌으로써 스스로 여성다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여성 정치인이 여성에게 배타적인 정치활동이라는 사회활동에 뛰어드는 선도자적 역할을 해왔지만, 여성은 여성적이어야 하며, 가정의 역할이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성역할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사회, 대중매체 등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의식 제고와 함께 여성 정치인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여성은 스스로 정치활동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활동에 관심이 있고 정치적 능력이 있는 여성을 위한 교육연수기회,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제도나 여성정치인을 위한 특별기금 등은 여성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여성 정치인의 이중역할 부담과 역할갈등은 기본적으로 가정내 역할,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직장탁아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탁아방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자녀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 정치인을 특수한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면, 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타인이나 민간 시설 등의 여러 대안 중에서 집안일에 대한 도우미나 대리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집안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여성 정치인끼리의 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 정치인들간의 사회관계망은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해결해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원홍·이인숙·권희완(1999), 「오늘의 여성학」,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자·주준희 역(1990), 「여성, 선거, 의회 진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35-37.

문숙재(1990). 「가정생산」, 서울 : 신광출판사.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 : 제주문화.

이영애(1995), 「성·권력·정치」, 서울 : 법문사.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2000), 2000 제주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부담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_____ (1995), 「정당의 여성정치참여와 참여지원 방안」.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_____ (1995),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_____ (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논문>

강근숙(2001),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실태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원홍(1996), “국회의원 여성후보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 보고서.
- 김윤주(1997), “맞벌이부부의 자녀 대리양육 형태 및 요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섭(2003), “전후 가족 내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변화가 일본정치에 끼친 영향”,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제 18호.
- 김지선(2002),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호·강성의(2002), “제주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비교고찰”,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 17권 1호.
- 김혜연(1995),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41-168.
- _____ (1996),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단체 Network Movement에 의한 가능성 탐색-”, 제주리뷰 1호, 42-54.
- 박언주(1996),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영옥(2001), “2002년을 향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서울 : 21세기 여성 정치연합.
- 소광희(2002),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정희(1990), “한국 여성정치인의 출신 배경과 의회진출 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제7집, 137-155.
- 송은희(1996), “현대 한국정치의 재성찰”,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_____ (1996), “한국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성 - 여성의 역대 의회진출 현황 -”, 한국정치학회보 30권 3호, 61-80.
- 양정혜(2002), “대중매체와 여성 정치인의 재현 -시사 월간지와 여성 월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46-2호, 452-484.
- 염미경(1996),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선거과정”,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사회과학연구소 7권 1호. 209-238

_____ (1997), “지방의회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 정당, 여성단체, 여성후보자와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사회과학연구소 8권 1호. 197-223

이병화(1990),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 제 29편, 175-207.

이정자(1992), “한국여성의 의회 진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2000),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춘호(1985),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선화(1994), “기혼취업여성의 보육시설 이용실태와 요구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은희(2001), “한국여성의 지방정치참여확대 연구 -정치제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개발원(2000).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방안.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98), “여성정치지도자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여성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당충당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함인희(1993),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34-135.

홍미화(1998),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외국 논문>

Devitt, J.(1999), “Framing Gender on the Campaign Trail” ~: Women's Executive Leadership and the Press. Washington D.C. : The Women's Leadership Fund.

Inter-parliamentary Union(IPU)(1997), “Men and Women in Politics :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 a World Comparative Study(Geneva : IPU, January).

Scharrer, E. and K. Bissell(2000), “Overcoming Traditional Boundaries : the Role of Political Activity in Media Coverage of First Ladies” , Women & Politics. 21(1). 55-83.

<웹사이트>

인간개발보고서, <http://root.re.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한국정치문화연구소, <http://www.kiwp.or.kr>.



<Abstract>

Studies in the family life of female politician in Jeju Island

Kim, Myung-Sil

Majoring in Home Economics &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im, Hye-Yeon, Ph. D.

A participation in politics of women is the one of important features on social changes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Political activities of women are their rights as well as have a significance of prominent social activities that can reflect an understanding and interest toward women to a decision-making.

Our country, notwithstanding rich human resources of women, has a poor level of political activities of women relatively in comparison with economic activities. It's fundamentally because a social-cultural attitude that narrows the women's role to family life acts a primary element of barriers, though there is a viewpoint that the women have a difficulty to participate due to organizational problems of political activities, comparing with economic activities. That is, a female politician is susceptible to experience a difficulty of performing a double activity in both politics and family life by reason of a woman

With this background, the studies aim to furnish some materials that can enlarge both an understanding and political activities for the female

politician by researching on difficulties for the female politician and of family life of the female politician.

The method of the studies is restricted to female politicians who have ever displayed direct parliamentary activities, or who currently perform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nd a leader of an organization. There have been made case studies through interviews lasting a few times in depth for 8 individuals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The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directly by a researcher through a questionnaire semi-formalized in groups of personal situation, family life and political activit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come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Firstly, the female politician enters into political activities through negative channel such as a solicitation by the surrounding people or a situational reason rather than by a personal will. It means that a form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is required as a social-cultural environment prevents the woman to show her own colors, differently from the male politician.

Secondly, the female politician has received help from relative, husband and even her children once her political activities are activated, though some surrounding people can have a negative viewpoint when female politician enters into politics. There have been many cases that mostly her relatives such as the families of both her husband and her birth helped with the rearing of children or housework, her husband was susceptible to be a supporter of house work as well as a proponent of his wife's political activities. Also, the children have tended to understand political activities toward their mother after growing up. It may interpret that the family and the near relative have an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the female's political activities, whereas it may mean that it is difficult the female's political activities if such understanding is not provided.

Thirdly, the female politician has a clear understanding that a sexual clarification culture is a barrier associated with structural problems such

as lack of assistance for a social system and its support basis. Accordingly, we can point out that the assistance on social system to activate the female's political activities and to support the female politician is required sincerely

Finally, for the female politician, the actuality required frequent social activities and spending much time at the outside caused a burden to escalate a difficulty in the family life. That is, there have been many cases that the female politician has experienced a mental conflict and difficulty due to a double activity in both a public sector of social activities and a personal sector of the family life and a personal sector. Especially, such mental burden has ever created a difficulty such as image control in both relationships of family and society, escalating to the public character of a politician



<부록> 면접 자료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5학기 학생 김명실 입니다.

前국회의원 현경대의원님을 제주에서 모시고 있던 비서 입니다.

평소 근무하면서 여성정치를 하는 분들이 과연 가정생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가 궁금하였고 정치가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진솔한 대답으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의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지도교수 김혜연

석사과정 김명실 (011-699-8088)

2004년 월 일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 연령
2. 직업
3. 교육수준
4. 주택유형 및 소유여부
5. 자녀수 및 연령
6. 결혼연령 및 지속년수
7. 소득 및 생활비정도
8. 배우자 연령, 직업

9. 거주지역

* 정치입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언제부터 정치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며, 실제 시작된 때는 언제이십니까?

2. 어떤 계기, 사건, 사람 등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3. 정치생활의 시작은 결혼 전, 후, 자녀의 출산 전, 후 언제부터였습니까?

4. 정치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남편, 부모님, 시부모님, 자녀, 친척, 친구 등

* 가정생활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집안일,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일은 주로 누가 합니까?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까?

집안일을 하시는 데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2. 자녀와 관련된 일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가 성장했을 때 등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시요.

자녀와 관련된 일, 자녀돌보기, 대화하기 등을 하시는 데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무엇이십니까? 자녀들은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편입니까?

집안일을 도와주는 편입니까? 어떤 일을 도와줍니까?

3. 남편을 위해 집안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보내시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등은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편입니까?

집안일을 도와주는 편입니까?

어떤 일을 도와줍니까?

4. 경조사 참석, 관공서 일 등 바깥일 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혼자, 혹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5. 집안일에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6. 친척(시부모, 부모, 주요 친척 들 모두)들은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각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어떻게 인식하는 편입니까?

집안일을 도와주는 편입니까? 어떤 일을 도와줍니까?

* 정치생활로 인한 변화와 대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정치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변화한 점은 무엇입니까?

2. 정치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까?

혹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3. 정치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에서 변화한 점은 무엇입니까?

4. 가정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까? 혹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5. 여성정치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거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